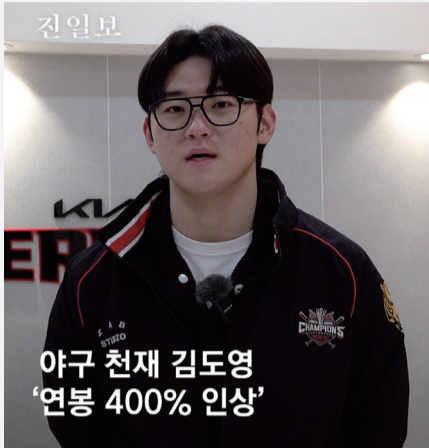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IA 김도영, 연봉 5억 계약... 4년차 역대 최고



야구 천재 김도영 '연봉 400% 인상'

'야구 천재' KIA 타이거즈내야수 김도영이 지난해 1억 원에서 400% 인상된 5억 원에 올해 계약 도장을 찍었다. 5억 원은 KBO 리그 4년차 선수로는 역대 최고 대우로, 2020시즌 외야수 이정후(당시 키움히어로즈)의 3억9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 많은 금액이다. 김도영은 지난해 페넌트레이스 141경기에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하며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했고 득점상과 장타율상을 거머쥐며 올해 KBO 리그에서 유일한 멀티 타이틀 홀더가 됐다.

尹, 탄핵심판 출석... 현직 대통령 첫 사례



심판대 오른 현직 대통령

윤석열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철든 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 현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CCTV 등 채택된 증거를 면밀히 조사했다.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하루 동안 독재자 될 것" 파리기후협정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파리 기후 변화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취임식 이후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과 각종 조치 78개를 철회했다. 당시 트럼프는 서명 전 연설에서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 변화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 영향이 미국까지 미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등의 행정명령도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사각형' 인스타그램... 피드 비율 개편



뒤섞인 피드 안 돌아간다

인스타그램이 지난 17일부터 전 세계 이용자 대상 앱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정사각형 모양 피드 비율을 개편했다. 릴스(숏폼) 최대 길이도 기존 1분30초에서 3분으로 늘렸다. 이번 업데이트로 컴백 등에 맞춰 피드를 꾸민 아이브, 에스파, 엑소 찬열 등 아이돌 계정에도 왜곡이 생겼다. 업데이트를 접한 이용자들은 4:5비율의 직사각형 피드 모양에 불만을 갖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과 아담 모세리 CEO 계정에 "다시 돌려달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불만이 속출하자 모세리는 "장기적으로 사진, 영상의 더 많은 부분이 표시돼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81 검은색과 자연

'빛 흡수' 검은색, 겨울 옷으로 인기

●색과 자연계

자연의 4원소로 공기, 땅·흙, 물, 불이 있다. 상징색 중 하나인 흙은 여름의 계절과 남쪽을 가리키며, 검은색과 생명을 의미한다. 음양오행에 있어서 검은색은 북쪽으로 현무, 계절은 겨울을 의미한다.

색소 때문에 검은색이 많다. 리더 2세(Jr. Reeder, James E.)는 그의 논문인 '정신작용에 대한 색의 범위'에서 망막의 형태를 느끼는 부분과 색을 느끼는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정신 이상 여부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색과 기능 그리고 신체

빛을 모두 흡수하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검은색은 모든 파장을 흡수한다. 그래서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즐겨 입는 옷의 색이며, 20세기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복(동복)의 색으로 지정됐다.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철 속 옷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검은색은 자외선을 포함한 모든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에 전달이 되지 않아 주름이 늘고 피부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이다.

피부색은 멜라닌(melanin) 색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색이 검다. 예를 들면, 일조량이 적으면 백인종이 되고, 적당하면 황인종이 된다.

북유럽은 백인종의 본산으로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백인들은 유색인종보다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사용하고 있다.

에버트(Abbott, Arthur G.)는 얼굴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얼굴의 변색에 대해 사람이 죽으면 검은색이 된다. 얼굴에 검푸른색을 띠면 간에 이상이 생긴 것이며, 얼굴에 검은 그늘이 있으면 신장에 열이 있어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치아에 흰 반점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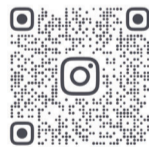
정신의학자인 융(Carl Gustav Jung, 1875~1962년)은 꿈의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얼굴이 면모(面貌)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흑화(黑畵), 백화(白畵), 홍화(紅畵)를 꿈의 분석과 관련해 언급했다. 특히 환자가 범한 과오와 비행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는 주로 검은색과 결합한 상징이 많았다.

망막의 주변부는 검은색과 하얀색만 느낀다. 흑인종의 눈동자는 멜라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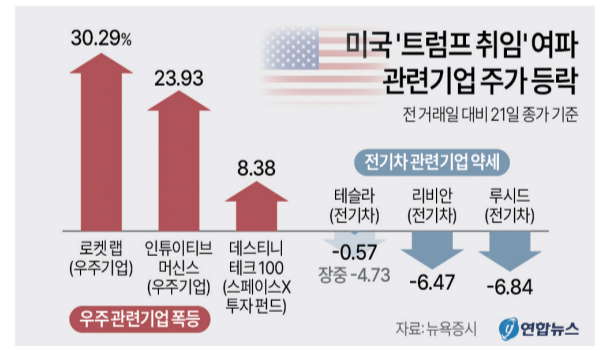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